

##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

### ●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 찬송가 / 하나님이 세상을

#### 1) 말씀

1885년, 서른여섯 살의 나이로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서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광혜원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 1887년부터는 벽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다방면에서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바람으로 1915년 경신학교를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쇠약하게 되어 1916년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화하여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 맡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처럼 자신들도 선교지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이 우주와 이 세계와 민족들을 창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며 그들이 당신과의 교제를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창 12:3).

#### 2) 다짐과 기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주님의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게 하소서.

